



허리굽힌 노원 병 후보들

4·24 재보선 서울 노원병 허준영 새누리당 후보(왼쪽부터), 정태홍 통합진보당 후보, 김지선 진보정의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7일 오전 노원구 당교 앞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 재보선 후보 첫 주말 기선잡기 총력전

### 노원 병, 허준영·안철수 '바닥 민심' 공략

### 부산 영도, 문재인 가세 '판세 뒤집기' 나서

4·24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서는 여야 후보들은 후보 등록 이후, 첫 주말인 6일과 7일 불비 속에서 선거전 초반 기선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우선, 서울 노원 병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허준영,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바닥 민심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데 공을 들였다.

'기호 1번'인 허 후보는 '진심 정치'를 내걸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바닥 다지기에 나섰다. 허 후보는 특히, 지난 4일 후보 등록 당시, 발표한 5대 공약에 이어 세부 공약을 추가로 제시하는 등 '지역발전론'을 바탕으로 안 후보의 '새 정치' 구호를 꺾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무소속으로 '기호 5번'을 배정받은 안 후보는 지역 주민들과의 스킨십 강화에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안 후보는 야권 대표 주자로서의 상징성을 강조하며 야권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행보도 보였다.

이를 반영하듯, 안 후보는 7일 상계동 노원역 부근에 마련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노원에서 새 정치의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겠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역에서 우거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인 진보정의당 김지선 후보는 키즈 카페를 찾아 젊은 부모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부산 영도 재선거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민주통합당 김비오, 통합진보당 민병렬 후보의 3파전이 달아올랐다.

이들은 일찌기 이날 선거사무소 발대식을 개최하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전반적인 판세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무성 후보는 '조용한 선거'를 내세우며 영도지역 인사들로만 선대위를 꾸렸다. 발대식에도 중앙당 관계자 등 외부 인사 참여를 뿌리고 싸움을 피우겠다. 그리고 대안한국 전역에서 우거지도록 하겠다.

민주통합당 김비오 후보는 주말 나들이 인파가 몰리는 곳을 찾아 '판세 뒤집기'의 시동을 거는 한편,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 내부 조직 강화에도 힘을 쏟았다. 특히, 김 후보 측에서는 문재인 의원의 전면적인 지원 등을 토대로 역전에 나선다는 기대다.

통합진보당 민병렬 후보도 이날 오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유세에 나선다.

야권 일각에서는 김무성 후보의 대세론을 뒤 흔들기 위해 야권 후보 단

일화 카드도 거론돼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충남 부여·청양 재선거 후보 등록을 마친 새누리당 이완구, 민주당 황인석, 통합진보당 천성인 후보도 선거 운동을 본격화했다.

이완구 후보는 우세한 선거 구도 속에서 판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 아래, '나홀로 선거전'을 펼쳐 지역 바닥을 다졌다.

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당 차원의 지원을 토대로 본격적인 추격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민주통합당 비대위는 오는 10일 오전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현장 회의를 갖고 부여·청양은 물론 충남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 최고위원 경선 '흥행' 저조 우려

### 5·4전대 앞두고 9명 주자 출사표...당 대표와 분리 선출 관심도 낮아

민주통합당 5·4 전당대회에서 4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경선이 썰렁한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도입으로 최고위원의 정치적 영향력이 과거 집단지도체제에 비해 크게 약화된데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면서 사실상 2부 리그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4·24 재보선에서 서울 노원 병에 출마함에 따라 민주당 전당대회의 흥행

도 크게 저조한 현실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민주당 내부의 동력 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대선 패배 이후, 반성과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데다 당내 주요 인사들도 대선 패배의 후폭풍에 몸을 사리면서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전대와 마찬가지로 대선 패배 이후 치러졌던 지난 2008년 7·6 전대도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이 분리돼 치러졌지만, 최고위원

경선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지 않았다.

다시 최고위원 경선은 김민식, 송영길, 안희정 등 486 선두자들이 대거 출마해 경선 흥행을 이끌었다. 안희정, 송영길 최고위원은 여세를 몰아 지난 2010년 6·3 지방선거에서 각각 충남도지사와 인천시장에 당선되는 기염을 토하면서 민주당의 잠룡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이다.

이에 반해, 이번 5·4 전대 최고위원 경선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들은 현

재 조정대, 양승조, 황주홍, 우원식, 안민석, 유성철, 장하나 의원과 장영달 전 의원, 장경태 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등 9명이다.

과거 최고위원 주자군에 비해 정치적 중량감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다만, 황주홍 의원 등 일부 초선의원들의 도전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단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면서 최고위원 경선이 사실상 2부 리그로 전락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며 "특히, 당내 주요 인사들이 출선 및 대선 패배의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면서 대거 출마를 포기한 것도 흥행 저조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YS, 감기증세 입원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했다.

가벼운 감기 증세를 보이고 있는 김 전 대통령은 치료를 받은 뒤 이번 주 초 퇴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의 입원은 지난해 7월3일 서울대병원 입원한 지 9개월 만이다. 김기수 비서실장은 "김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동네 배드민턴장에 나갔는데 이후 콧물 등 가벼운 감기 증세를 보였다"며 "심각한 증상은 아니므로 링거액을 맞고 토·일요일 치료를 받으면 퇴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새누리 최고위 공백 장기화 '호남 뭉' 지명직 인선 늦어져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호남 뭉' 지명직 최고위원 배출이 늦어지고 있다.

당의 최고 의결·집행기구로 당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데 3명의 '공석'이 두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공석이었던 정책위의장 자리에는 최근 나성민 의장대행이 임명됐다.

그러나 당대표가 임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들의 인선은 '감감무소식'이다. 애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데도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4월 들어서도 인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최근 "당 지도부가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일부에서는 5월초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경선으로 새 원내지도부가 짜이는 것과 때를 같이해 당 인사채신 차원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이 임명되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최고위가 제기능을 하려면

현재와 같은 상태를 방치해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원내대표 경선과 별개로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실제 최근에는 외국출장을 떠난 최고위원 3명 등 모두 4명이 동시에 자리를 비워 재보선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무공천 여부 등 주요 결정이 뒤로 밀리기도 했다.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가 어떻게 배분될 지도 관심사다. 보통당의 취약지인 호남 인사에게 우선권을 주는 관행이 있는데다 지난 대선에서 당의 호남 지지율이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새 정부의 인사에서도 호남 출신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호남 배려' 원칙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류수택 광주시당위원장이나 호남 뭉 최고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강원도도 정 부인사에 호남 못지않게 소외감을 느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두 자리 중 한 자리는 강원 출신에게 돌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DJ 타던 차량 노벨평화상기념관 기증

박지원 의원, 이희호 여사로부터 물려받아

민주통합당 박지원(복포) 의원은 7일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로부터 물려받은 김 전 대통령의 차량을 노벨평화상 기념관에 기증기로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고 '김 전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타던 승용차를 오는 6월15일 김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기념하기 위해 목포 삼학도에 건립되는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송수스러웠지만 김 전 대통령의 체취를 느낄 수 있었다"며 "차량 기증을 통해 평화와 인권을 강조했던 김 전 대통령의 뜻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여사는 다리가 불편했던 김 전 대통령을 배려해 특수제작한 2008년형 에쿠스 450차량을 최근 박 의원에게 물려줬으며 박 의원은 지난 5일 이 차량을 타고 지역구인 목포로 이동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 3단계 치료로 해결

**안구건조·눈피로** 눈이 마르고 건조하며 침침하고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다

최근 직장인 및 수험생, TV를 자주 보는 어린이들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조금만 책을 들여다보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다가 보면 눈이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고 머리까지 무거워지는 증상을 보인다. 이런 증상을 '안구건조(眼球乾燥)' 또는 '안정피로(眼精疲勞)'라고 한다. 눈피로는 보통 사람이라면 별로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에서 쉽게 눈에 피로를 느끼고, 두통이나 시력장애, 복시(複視-사물이 두 개 보이는 현상)를 일으키고, 심할 때는 구토까지 일으키는 질환이다. 물든 난시, 원시, 사시의 소유자는 더욱 빨리 피로증세를 보인다.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한다면 원인은 간에서 찾아야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간 기능이 울체되고 시간이 지나 간화(肝火) 혹은 간열(肝熱)이 쌓이면 그 열이 머리와 눈으로 표출된다.

이 때 간의 화기(火氣)가 인체의 상부인 머리와 눈에 영향을 미쳐 눈이 마르고 건조해지며, 침침해지고 피로해지며 심하면 '눈에서 불을 뿜는 것' 같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눈을 뜨기가 힘들어 눈을 감고자 하고 상대방 눈을 쳐다 보기가 힘들며 상대방도 내 눈을 쳐다 보면 눈이 피로해진다거나 눈에 이물감이 있는 것 같고 말기상황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다.

인다라한의원 광주점 원장 김동진

**만성피로** 쉬어도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전신피로는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질환으로 발견되지 않지만 일상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조금만 육체적인 일을 해도 피곤이 가중되며, 휴일에 잠을 자도 피곤이 개선되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도 없다. 뒷목이 항상 뻐뻐하다. 눈이 자주 침침해지고 입이 자주 마른다. 업무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폭 자고 쉬기 등 나름대로의 '피로회복 대책'으로 피로를 풀려고 할 뿐 피로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해야 할 질환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피로야말로 오히려 더 적극적인 치료로 풀려야 한다.

으로 피로의 원인은 물론 몸의 건강 자체를 살려주기 때문이다. 인다라한의원은 이런 전신피로의 원인을 소화기의 약화와 기혈의 부족과 마혈,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본다.

www.indara.co.kr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0-24 광주은행 6층 광주점 062-368-5075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대한한의학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20106-중-9819호 [광고]

# 임대

- ▶ 6층건물, 각층 110평, 옥상 광고탑
- ▶ 6층고급주택
- ▶ 병/의원, 약국, 커피숍,편의점
- ▶ 식당, 학원, 교회, 체인점 등등

# 목포 2호광장 4거리 코너 구, 맹수한의원 건물

# 매매

- ▶ 대지 144평, 건물 437평, 2004년 신축
- ▶ 매매가 14억 5천만원 (일시불 조정가)

주인 직접 상담합니다. H.P : 010-3605-5000